

# 물가 안정 대책에도 여전히 비싼 채소

### 양배추·당근 등 대량 발송...올해 말까지 수입물량 할당관세 면제 평년수준에는 못미쳐...작황부진·기상불안에 봄 채소 출하 지연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률이 컸던 배추와 양배추, 당근 등 채소류의 도매가 하락세가 뚜렷하다.

정부는 막대한 가격 안정 지원금과 가격이 폭등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비축 물량을 대량 발송하고, 신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물가 안정 대책을 펴왔는데, 이 같은 정책이 가격 하락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배추(상품·1포기) 도매가는 3507원로 전월 동기(5295원) 대비 33.8% 하락했다.

배추 도매가는 전순(4430원)과 전일(3507원)에 비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양파(1kg) 도매가는 1348원에

서 1171원으로 177원(13.1%), 양배추(1포기) 가격도 6448원에서 5325원으로 1123원(17.4%), 당근(1kg)은 4325원에서 2719원으로 1606원(37.1%) 각각 내렸다.

이 외에도 주요 농산물들을 품목별로 보면 ▲쌀(20kg) 4만7868원→4만7500원 ▲감자(1kg) 3170원→2739원 ▲대파(1kg) 1869원→1852원 ▲청양고추(10kg) 5만6117원→4만942원 등 전반적인 농산물 도매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사과·배 등 신선과실 등 천정부지로 치솟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3월 1500억원의 지원금 투입을 시작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면제 및 저장물량 조기 투입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치솟은 배추·무 등 일부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들어 매일 배추110t,

무 100t을 발송하고 있다. 또 배추·포도·코코아 두 수입 물량 전체와 양배추(6000t), 당근(4만t), 마른김(700t), 조미김(125t) 등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농산물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지원금을 통해 이뤄졌던 단편적인 소매가 하락뿐만 아닌 균형적인 농산물 물가 안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황부진으로 인한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는 올해 노지 봄배추 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시설배추에서 노지 봄배추로 전환하고 있고, 무는 이상기후로 인해 봄무 출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특히 양파의 경우 주산지인 무안군과 신안군에서 생장기에 잦은 강우 및 일조량 감소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잎마름 현상이 나타나는 등 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 ‘농사만사’

### 농번기 풍성한 새참은 사라져 가지만

#### 기계화와 인력난에 간편식 대체...일손 배려하는 마음은 여전히

농사일은 원래 배가 고프다. 식량을 생산해 배 불리 살기 위한 일이니 당연하지만, 팽배에서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밥을 먹어도 배가 금방 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식사 사 이에 먹는 참’, 즉 ‘새참’이다.

새참은 ‘사이참’의 준말로 육체노동이 심한 노동자나 농번기의 농부들은 하루 세 끼의 식사 외 한두 번의 식사를 더 하게 된 데서 유래했다. 한 번의 새참은 아침 식사를 새벽에 일찍 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에 하고, 또 한 번의 새참은 점심과 저녁 사이인 오후 4시경에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새참을 먹는 모습은 18세기의 풍속화가인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의 풍속도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 그림에는 6명의 장정이 옷통을 벗어부친 채로 일을 하다가 등에서 새참을 먹고 있다. 식사는 왼손으로 받쳐 든 한 사발 밥에, 젓가락으로 집고 있는 한 그릇의 반찬 그릇이 곁이다. 어떤 이는 간혹 송충을 마시기도 하고, 동자가 따라주는 술을 커다란 사발로 마시기도 한다. 그 곁에는 작은 바둑이가 지켜 보고 있다. 또 한 옆으로는 아낙네가 뒤로 돌아앉아 어린아이에게 젓을 빨리며 밥소귀리를 지키고 있다. 아낙네의 곁에는 한 소년이 한 그릇 밥을 얻어먹으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며칠 전 우연히 들녘에서 참깨 농사를 위해 비닐 씌우기 작업 품앗이를 하는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르신 네댓 분이 비닐 깔기와 흩날기를 번갈아 가며 일을 하고 있었다. 새참이 있을지, 준비했다면 될 했는지 궁금했는데 10시쯤 빵과 콩 음료로 해결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나의 어린 시절 새참 추억을 소환해 봤다. 예전엔 새참 먹는 풍경은 이렇진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서로 거들며 일하다 보니 새참을 먹을 때는 잔치 같은 분위기였다. 벼농사를 손으로

지를 때는 아이고 어른이고 다 일꾼이었다. 모내기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일하고 음식도 함께해서 나눠 먹었다. 어려운 시절이라 보리밥에 돼지비계국과 김치가 전부였지만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시며 즐겁게 일하는 모습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새참 먹는 풍경도 많이 변했다고 한다. 메뉴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벼농사가 기계화되면서 모내기나 벼 베기 현장에서 새참이 사라진 데 따른 것일 게다. 대규모로 일하지 않으니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소량의 간편식 메뉴가 등장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어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와 일당을 주고 할머니 일꾼을 쓰는 요즘 농촌의 새참 메뉴를 들여다봤다. 나주의 한 벼농가의 식사와 새참 메뉴다. 하루 네 끼를 먹는 일손을 위해 주인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된장국으로 아침을, 10시에 과일과 콩 음료로 오전 새참을, 12시에 닭볶음탕으로 점심을, 오후 3시에 떡국으로 오후 새참을 준비했다. 한 참 바쁠 때는 콩국수나 짜장면을 배달시켜서 먹기도 한다고 했다.

새참 풍경의 변화와 함께 새참 대표 음료였던 막걸리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음료가 다양해지고 소주와 맥주 등 주류의 취향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그보다는 과음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더 큰 이유란다. 차 운전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와 같다.

시대에 따라 새참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일하는 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정성으로 준비해 대접하고, 일꾼들 역시 내 일처럼 열심히 일하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여전히 같았다. 이것이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상부상조 정신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유산이다.

/bigkim@kwangju.co.kr

## ‘희망농업’ ‘행복농촌’ 실현...핵심역량사업 발굴 나선다

농협 광주본부

지도사업 추진 전략회의 개최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16일 광주본부 회의실에서 지역농협 지도사업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도사업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참석자들은 모두에게 행복과 안정을 선사하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기 위한 ‘희망농업’, 젊음과 지혜로 다시 살아나고 쉽고 즐거움으로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행복농촌’을 슬로건으로 삼고,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역량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추진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 ▲농촌활력화를 위한 도시민 농촌체험활동 ▲적기영농 지원을 통한 농촌인력증가사업과 농촌일손돕기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지역 특색사업 발굴 ▲농업재해 피해 체계적 대응 ▲영농도우미(질병·사고농기) 사업, 행복채우미(취약농가)

사업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및 농업인법률구조 사업 등 다양한 농업·농촌·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농업·농촌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협의 지도사업 역할을 강화해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상큼애’ 블루베리 라이브커머스 완판

농협 전남본부, 유통비용 최소화 노력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지난 14일 전남본부 온라인지역센터에서 전남광역농산물브랜드 ‘상큼애’ 블루베리 라이브커머스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판매상품은 곡성농협(조합장 김원술)의 우수특산물인 무농약 생 블루베리 1kg(100g·10팩)으로, 전남본부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한정수량 2000개를 전부 판매했다.

라이브커머스는 농협신선플러스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진행됐으며, 생방송 중 구매 인종과

객 30명을 대상으로 보성농협(조합장 문병완) 응치울벼쌀 누룽지를 이벤트 사은품으로 증정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이번 할인판매로 인한 손실액이 생산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곡성농협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과일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전남농협은 유통과정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해수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다음달 21일까지 실시

냉장훈어 등 취급업체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동류·활가리비·냉장훈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2500곳 이상

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시민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소비자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